

# 조각가 스님의 구도와 깨달음 그려

이만희·강영걸 콤비, 2013년 '그것은 목탁구멍 속의...'



'그것은 목탁구멍 속의 작은 어둠이었습니다'가 9월 23일~29일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에서 공연된다.

## 9월 23일~29일 대학로예술극장서

극작가 이만희와 연출가 강영걸 콤비의 작품 2013년 '그것은 목탁구멍 속의 작은 어둠이었습니다'가 대학로 무대에 선다. 극단 완자무늬(대표 김태수)는 9월 공연을 앞두고 8월 16일 조계사 안심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삭발식을 진행했다.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에서 9월 23일~29일까지 공연되는 연극 '그것은 목탁구멍 속의 작은 어둠이었습니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묻는 작품이다. 작년 연출가 강영걸 씨의 직순을 기념하여 시작된 '이만희-강영걸 연극시리즈'의 세 번째 작품으로 조각가 출신 스님이 번뇌에서 벗어나고, 수행의 방편으로 불상을 만들면서 겪는 구도와 깨달음의 세계를 통해 인간과 예술의 본질을 다루고 있다.

연출가 강영걸은 "이만희 작가와 이 작품으로 처음 만났고 이후 7편 이상의 작품을 같이했다. 작가가 7년 이상을 고쳐가면서 최선을 다한 작품이다. 종교색이 강하지만 종교적인 작품을 넘어 휴머니즘에 초점을 둔 작품"이라며 "초연 당시에는 소극장 공연을 했는데 이번에는 무대가 커지면서 영상을 이용해 작가의 정신 세계의 표현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1990년 초연 당시 서울연극제 작품상, 백상예술대상, 삼성문예상을 휩쓸었던 이 작품은 이만희 강영걸 콤비의 재회에 내로라 하는 배우들도 두 발 벗고 나섰다. 40대부터 70대의 배우들이 모여 평균나이 60세, 연극계의 그라이파워를 자랑하게 될 오현경, 최종원, 이문수, 박팔영, 민경진, 배수백, 박민정 등 명품캐스팅으로 관객들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특히, 올해 만 76세로 연극계의 살아있는 전설의 배우 오현경 씨의 연기는 관객들에게도 큰 관심사다. 지난 10년간 식도암과 위암 수술도 대어섯 차례, 암 투병 중에도 꾸준히 무대와 스크린을 오가며 연기인생을 이어온 그는 "일생 마지막 작품인 것처럼 혼신의 힘을 쏟아 이번 무대에 오르고 싶다"며 식지 않은 열정을 이야기한다.

기자 회견 후 주요 배우들은 조계사 대웅전에서 삭발식을 거행 공연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공연은 9월 23일~29일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에서 공연되며, 이후 10월 4일~5일 노원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10월 11일~12일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옹부홀 등에서 공연된다. 티켓은 VIP석 70000원 S석 50000원 A석 30000원이다. (02)2272-2152 정혜숙 기자

# BBS '박경수의 아침저녁' 100회 맞아

지난 4월 1일 첫 전파를 탄 후로 방송 100회를 맞는 불교방송 '박경수의 아침저녁'이 교계 를 넘어서 공중파 등 일반 시사 프로그램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유력인사들의 연이은 출연과 소외된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부러다. 자연히 뉴스 노출 빈도 또한 늘었다.



내에서는 박재동, 하백, 사경가, 허락, 선생, 문화체육관광부 박종길 차관 등 여러 인물을 만나며 인생의 지혜를 전해 주기도 했다.

불교방송 정치부국장을 맡고 있는 박경수 앵커(사진)는 "고급 인터뷰들이 프로그램에 출연할 수 있었던 건 섭외부터 진행까지 프로그램 조정을 공정성 유지에 맞춰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치는 물론 건강, 음식, 부동산, 문화 등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가 하면 '박경수가 만난 사람' 코

불교방송의 대표 간판 프로그램인 만큼 교계뉴스는 물론 법현 스님과의 '즉문즉답' 코너를 마련해 불교방송으로서의 정체성 또한 잃지 않았다. 불교 교리를 전하고 청취자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안으로, 밖으로 영역을 다져가고 있는 아침저녁. 불교계와 사회를 잇는 든든한 교두보가 되길 기대한다. 배현진 기자

# 중생 발톱 짚아주는 부처님 보았는가?

## 주완수 '붓다, 먼저처럼...'展

"부처님이라고 하면 대부분이 법당에 앉아 계시는 부처님을 생각하기 마련이죠. 이 또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상에 불과하잖아요. 부처님이 좀 더 낮은 곳으로 오셔서 세상 구석구석을 비추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작품을 구상해 보았습니다."

주완수 작가(한국예술종합학교 애니메이션학과 교수)의 '붓다, 먼저처럼 연탄재처럼' 전시가 8월 27일까지 인사동 나무화랑에서 열린다. 주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다양한 부처님의 모습과 중생들의 모습을 통해 이 시대 불교를 이야기한다.

무중에 걸린 부처님, 고단한 서민의 발톱을 짚아주는 부처님, 철조망에 묶여 분단된 조국을 나타내는 부처님 등은 여지껏 볼 수 없었던 부처님 모습임에 분명하다.

"누구나 깨달을 수 있고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노래방 도우미, 당구장 주인의 모습 속에서도 부처님을 찾을 수 있죠. 또 세상에 배고픈 사람들의 밥을 먹이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그 또한 역부족인 부처님도 있을 수 있죠. 세상에는 그래서 완벽하고 전능한 부처님이 아니라 세상의 모습을 대변해 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부처님이 필요한지 모르죠."

이렇게 그는 신비로움과 근엄함을 극도로 부정하고 채도를 낮추고 강조와 생략 단순화 시킨 조형을 통해 새로운 이미지의 부처님을 완성시켰다.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밝고 환하고 품위와 위엄을 갖춘 부처님을 생각해보지 않은 것도 아니죠. 하지만 그렇게 환상적인 부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부처님일까를 고민했어요. 결국 수십편 작품을 뒤집고 뒤집다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부



주완수 작가의 '붓다, 먼저처럼 연탄재처럼' 전시가 8월 27일까지 인사동 나무화랑에서 열린다. 그는 이번 전시에서 다양한 부처님의 모습과 중생들의 모습을 통해 이 시대 불교를 이야기한다.

## 민중미술·불교 만나 서민 붓다 표현 8월 27일까지 인사동 나무화랑서

처님의 모습으로 표현해보고자 마음을 잡았죠."

민중들 삶 속으로 들어간 부처님을 표현하기 위해 작가는 연탄재를 소재로 선택하기에 이른다. 보관도 어렵고 표현하기도 어려운 연탄재를 소재로 택한 이유는 뭘까? 바로 서민들의 삶을 상징하는 것이 연탄재이기 때문이다. 연탄재를 덧발라 질감을 표현하면서 민중과 함께하는 부처님의 형상을 그려낸 것이다.

작가가 부처님을 서민의 모습으로 표현하는 이유는 20대 '힘전'을 통해 민중미술을 창시한 그의 이력에서 찾을 수 있다. 홍익대에서 서양화를 전공한 그는 혼란했

던 80년대 시대 속으로 뛰어들어 민중운동을 하게된다. "대중에게 좀더 쉽게 다가가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다가 판화와 애니메이션으로 장르를 바꾸게 되죠. 정치 풍자 만화집 (보통고릴라)를 연재하고 한려레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신동아 주간 한국 국회보 등에서 시사만화를 연재하게 됐죠."

이런 그가 불교적 그림 그리기를 마음 먹은 것은 40대 초반에 고은의 소설 (화엄경)을 읽으면서다. "산재동자의 구도 과정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조정적으로 충분히 풍부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불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다가 2006년 정토회 깨달음의 장을 다녀오고 불교대학과 경전반 공부하면서 불교적 소재로 본격적인 작품을 시작하게 됐죠."

그는 구도와 깨달음을 주제로 전공이었



'붓다, 노래방 도우미 하다 알게된 당구장 아저씨의 발톱을 짚아주는 내용'의 작품

던 서양화를 다시 그리기 시작했고 2년 전에는 '목어이야기'라는 이름을 걸고 전시를 열기도 했다. 민중 미술을 치열하게 고민하던 20대 청년은 중년이 되어 불교에 귀의 새로운 예술 세계를 펼쳐기에 이른 것이다.

"저의 작품은 정통 불화의 관점에서 보면 뼈뼉하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전통 불화가 이런 그림을 그리지 않을 것이고 정말 불교에 관심이 없다면 아예 이런 소재에 손대지 않겠죠. 결국 불교에 관심이 있고 불교에 가는 기대가 크기 때문에 오늘의 작품이 탄생하게 되었다고 보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행이 예술이고 예술이 곧 수행이라고 말하는 작가는 앞으로도 불교적 소재를 통해 민중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그림 그리기에 매진할 생각이다. (02)722-7760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 권지은 '놀함전'... 수월관음도 등 26점 선보여

## 인사아트센터서 21~26일

불화작가 권지은 씨(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가 8월 21~26일 서울인사아트센터서 '놀함(納喊)을 주제로 개인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수월관음도, 영산회상도와 사천왕도, 삼신불도(三神佛圖), 삼존불탑도(三尊佛塔圖), 아미타레영도, 정병(淨瓶) 그림, 꽃을 문 정초 그림인 함화청조도(含花靑鳥圖) 등 26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놀함이라는 제목은 1922년, 당시 41살이었던 작가 루쉰이 단편소설집을 내면서 붙인 서문 제목에서 따왔다 한다. 권 작가는 올해 마련한 살인 자신이 클이나 말로는 못 풀이내는 심정을 이 소설집에서 빌

려왔다고 전한다.

작가는 "좋아하는 그림이지만 그것이 불화였기에 마치 나는 쇠로 만든 방에 갇힌 사람 같았고, 그 안에서 들리지 않는 소리를 어눌하게 더듬거리며 듣는 사람 같았다. 누군가는 그 적막을 짊어주어야 한다면 의미가 없는 함성이라도 질러 그들을 위로하고 싶고 그것이 채워져 되어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고 이야기 한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다이토쿠지 수월관음도 모사작품을 출품 주목받고 있다. 권 작가는 "일본 크기로 비단에다가 운모와 주사를 비롯한 각종 광물질 안료인 석채(石彩)를 입힌 이 수월관음도는 5개월의 시간을 투자했다"고 전한다.

현재까지 파악된 고려불화 약 160점 중

에서 일본 교토에 소재하는 다이토쿠지(大徳寺) 소장 수월관음도는 가장 아름다운 작품 중 하나로 꼽힌다. 227.9×125.8cm 크기인 이 불화는 고려불화 중에서 규모 면에서도 일본 사가(佐賀)현 가가미진자(鏡神社) 소장 수월관음도(419.5×252.2cm) 다음 갈 정도로 압도적인 규모를 자랑한다.

한편, 권지은 작가는 동국대에서 불교미술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현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미술공예학과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한국불교미술협회회원, 동서미술문학학회 학술위원, (사) 한국단청문양보존 연구회 회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010)7199-9760 정혜숙 기자



다이토쿠지의 작품을 모사한 권지은 작 수월관음도. 229×126.5cm

## 생각- 2 이상의 한약향기

동의보향은 한방약재 중에서 향이 좋은 생약을 엄선하여 제조한 한방방향제로 생활공간에 그냥 놓아두는 것만으로도 숲속의 아침처럼 청정하고 상쾌한 천연향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동의보향은 화학성분의 방향제와는 달리 심신을 안정시키고 건강한 생활을 지켜주는 향기보약입니다.

**\*용도 : 자동차, 공부방, 침실, 거실, 장롱 등**  
**\*행사, 선물용 대량 구매시 상담해 주세요**

고요한 향기 퍼져~  
고요해 지는 마음

동의보향  
062)385-9954

## 깨달음에 도달하는 수행지침서 화계의 해탈 그리고 님바나 신간!

붓다가 전하는 수행의 비밀!  
이 시대 최고의 수행지침서!  
누구나 쉽게 열반에 이르는 알기 쉬운 불교수행법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붓다의 머리카락과도 같아서 수행자들에게는 진여의 강을 건너는 뗏목이 될 것이요, 범부중생에게는 감로수가 될 것입니다  
- 전 해인사 주지, 현 대한불교조계종 원로 태종사 조실 도성영공, 추천사 중에서-

한국의 선불교 전통에서 오랜 세월 수행하다가 초기불교의 가르침을 다시 접하고 비로소 안심입명의 숨을 쉬게 된 스님의 진솔한 사연을 접하는 것 같아 깊은 감동이 울려옵니다  
- 한국배달리성전협회 회장 퇴현 전재성박사 추천사 중에서-

아신 수완나 편저 / 신서판 / 254쪽 / 8000원

[출판사 서평]  
역사와 마음 닦는 책을 거울, 보감이라고 하였는데, 이 책이야말로 현대판 불교 명심보감 이라고 할 수 있다. 단지 편견 없이 바라보고 가르침대로 실천할 수 있다면..... 한 구 한 구, 한 쪽 한 쪽 독서하며 수행해 나가면 반드시 해탈과 님바나에 이를 수 있다.

구입문의 : 정우서적 (02)765-2920